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료	1739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3월 2일 금요일	Issue No.	1739
		Date	April 18, 1969: Fri.

북선이 미국비행기 격추를 주장 트라이앵글 불명, 오끼나와 기지 미군 긴장 푸에부로 이래의 긴급대서

(의싱은 4월 15일 밤, 에이피) 북조선측은, 북선영공을 깊이 침입한 대형의 미정찰기기를 격추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기적추사건에관해서, 미국방총성은, 31명을 태운 미해군정찰기가 일본해방면에서 행방불명이라고 발표하고있다.

(나하 4월 15일 밤, 동등) 미군기가 북조선에서 행방불명이된 사건은, 지시 오끼나와의 미군의 긴장을 불러고있고, 15일 밤 가디나기지의 미공군당국의 발표에의하면, 작년 1월 말의 푸에부로 사건이때의 긴급대서를 동가지와 나하공군기지에서 취하고있다. 이 때문에 가디나기지의 에르 105 에르 4 유엔립편추기와 구조 헬리콥터등이 출동준비를 하고 대기하고있다고한다.

미국방총성은 북조선측이 미군기를 격추하였다고는 아직 확신하지안코있으며, 다만 대규모적인 수색을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승무원 31명중 30명은 해군장병, 1명은 해병대소속병사이다. 국방총성에의하면, 문제의 미해군기는 동상의 정찰비행중이었던것으로, 북선의 연안지대로부터 적어도 50해리밖의 상공을 날르고있었던것이라고한다. 이미 해공으로부터 대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생존자발견의 보도는없다.

생각나는 푸에부로 사건

또 미국측발표에서는, 미군기가 행방불명이된 지점은 정권의 남동방략 95마일의 해상이라고보고 있는데, 동지점은 작년 1월 25일 미국의 정보수집선 푸에부로호가 잠입곳으로부터 2백마일내에있다. 또 이번의 사건에대해서 님슨대통령에도 새벽에 통지가 가있다.

미국회측도 증대시

(의싱은 4월 15일 밤, 에이피) 북조선군이 미군해군기를 격추하였다고 북조선측이 주장하고있다는 뉴스에대해서, 미국국회의원들은 이를 증대시하고있는데, 지금현재 북조선측을 요구하는 소리는없다. 한다 의고측에의하면, 미군기는 연안으로부터 백마일 이상도되는 공해상공에서 공적당하였다는 통지를 한국정부는 받고있다고하는데, 미국부성측은 이에대해서 아무 말을하지안고 있다. 미국외상원군사위원회의위원장은 오늘의 사건은 국이 증대한 사태를 자아냈다고 말하는 한편,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것은 대통령과 군사고문들이 결정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제 1 편)



일본해 방면에서의 경찰비행재개 금후 전투기로 보호. 닉슨 대통령 연명

(와싱톤 4월18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8일, 취임이때제5회재외 기자회견을하고, 북조선에의한 미해군기력추사건에관해서 "경찰비행은 일시중단되었는데, 오늘 나는 재개의 지령을 내렸다." 라고 발표하였다. 동대통령은 금후의 경찰비행은 "방어안에 진행된다" 라고 말하고, "이것은 위협이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부가하였다. 닉슨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북조선에의한 공격은, 정당한 이유를 갖지 않는 그의 공격으로 경고도 엄했다.
- 1. 미국기는 북조선연안밖의 40해리내에 접근한 적은 없고, 또 공격을 받은 당시에는 90해리 이상의 공해상에있었다. 동기는 경찰비행을 도중에 정지하고, 북조선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이었다.
- 1. 미국항공기 또는 선박이 국제영공이나, 공해상에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공격의 목적이 아니고 장래에도 공격목적이 되지 않는다.
- 1. 한국에는 미군 5만6천명이있다. 한국에대한 협위와 동진에 미군에대한 협위이고, 방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는것은 사령관의 책임이다. 경찰비행은 방어전략의 일종이며, 미군은 급변에들어서, 북조선구역에서 190회의 경찰비행을하고있다.

비에트넬 화평의 희망증가

비에트넬문제에대해서는 닉슨대통령은, 취임이때 화평의 기회는 "의의있는 진전을 보이코있다" 라고말한후, "그러나 평화가 풀 눈앞에있다고하는 잘못된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기실라" 라고 부가하였다. 화평고섭에있서서외 호조건으로서 동대통령은, 남비에트넬정부가 종래의 비에트넬 정부의 형태로부터 장래의 정부형태에대해서 가까이 걸어갈 자세를 보고있는것, 남비에트넬의 정치정세가 이전보다 안정한것을 들고, 특히 제2외 요소에대해서 "고섭의 여지가 전보다 더 열렸다" 라고 말하였다.

미국측의 항의만으로 산회

북조선과의 판문점 회의

(합문점 4월18일밤, 공동) 일본해에서의 미해군경찰비행기추사건으로 주목을 끌고있는 판문점군사정전 위원회제 290회본회의가 18일 오전, 공산측의 요청으로 열렸다. 공산측대표 리준선 소장은 벙두부터 휴전선 부근에서 4월중순 미군측이 공격을 가하였다고 비난하였을따름으로, 미군기력추사건에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서 국련군대표인 뉘주소장은 성명을 읽고, "미군기는 공해상에서 격추되었다. 이번의 격추사건은 자위자위이고, 국제법에 위반한 위반행위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또 이러한 사건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보증하라 요구하였다. 그후 이소장은 미군기가 어디로부터 비행하여왔는가라고 질문하여왔는데, 뉘주소장은 이에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때문에 이날의 회의는 단지 46분간으로 끝났다.

캐나다 증공승인에 적극적

(동경 4월18일밤, 공동) 제5회 일본.캐나다 각료위원회는 18일 외무성에서 사.캐.캐나다 외상과 아이지 일본 외상간에 열려 캐나다의 증공승인등을 중심으로 의견교환을하였다. 석상 사.외상은, 캐나다의 증공승인문제에대한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다음과같은 견해를 말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제 3 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 (1) 캐나다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고섭을 할 작정이며, 아무 조건도 부치지 않는다.
 - (2) 증공을 승인하는것은 경제적인 동기보다도 정치적인 동기에의한것으로, 국내세론을 전제로 심중히 검토한 결과에의한것이다.
 - (3) 증공의 국련대표권문제와 금후의 증공승인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가을의 국련총회에서 캐나다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것인가는 장래의 문제이다.
- 이에대해서 아이지일본 외상은, 증공문제는 일본측에서 큰 문제이기때문에, 심중한 태도로 취급하고있다고 설명, 금후에도 증공문제도 일본.캐나다가 충분한 연락을 취하고있다고 희망, 캐나다측도 이를 수락하였다.

도부척 제1서기 사임

첵코스로바키아 후임에 후사크씨

(푸락 4월18일밤, 공동) 푸락방송은 17일밤, 동일 푸락성내에서 열린 첵코스로바키아공산당중앙 위원회에서, 도부척당제1서기가 사임하고, 후임으로 윈소파의 우사크.스토펠키아당제1서기가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작년1월의 당제1서기 취임이때, 1년3개월에걸쳐서, 소련의 압력하에서 자유화포선을 지켜온 도부척씨는 드디어 권력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첵코스로바키아정세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또 18일 국영 첵코레카통신은 스토펠코프스키씨가 당중앙위감부위원직을 해직당하는동시에, 전에 21명으로 구성 되어있던 감부회가 11명으로 축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도부척씨는 감부회에는 아직 이름을 너코있다. 또 감부회의 새회원으로서는 노동조합위원장 가델.보라체시와 페올.코로오가 국회의장이 임명하였는데, 이들은 도부척포선의 개혁파로 생각되는 사람들이다. 당제1서기의 교체발표후, 스토펠코프대통령이 레테비.캐메라입에서서, 지도부 교체에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어 후사크신제1서기가 등장, "우리는 68년1월 이래 새로이 우리에게 가한것을 결코 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였다.

군대 출동

푸락의 분위기는, 도부척씨가 작년 8월의 소련군동의 진입직전, 소련의 명령에 굴복할것을 거부하였을때에보인 긴장을 기억시키는것이있다. 17일 푸락공항에 폐쇄명령이있었는데, 그 이유는 명백치않다. 18일에들어, 첵코스로바키아경찰과 군대는 분쟁에대비하여, 국내의 요소의 경비태세에들어갔다. 지금 시위의 움직임은 없다. 소련은 첵코스로바키아군만으로는 치안유지가 충분이 되지 않으면 첵코주류소련군을 출동시킨다고 경고를 내었다고한다.

수정예산내용을 닉슨대통령이 발표

(와싱톤 4월15일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15일, 1969년도수정예산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것에의하면, 40억불의 삭감은 대반이 방위, 군사원조제외부본과, 사회보장급여부분에있다. 각성이 다 예산의 삭감을 받고, 예산중액은 범죄대책이 중요시된 사법성만으로되어있다. 군사비의 11억불의 삭감은, 비에트넬전비의 축소, 존슨대통령이 제안한 반대투안도란 계획의 축소, 그에 단사정의 공격피수입 구입계획의 "제코모"에의한것이다. 또 존슨대통령에의해서 국회에는 부락되지안았으나, 1월의 예산발표에 포함되어있던 사회보장급여의 증액은, 7%로 정지되었다. 그러나 연방예산국에서는 부양아동이있는 가족에대한 급여액을 잠잠시키지안기로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연금급여액은, 존슨제안보다 증가될 결과된다고 설명하고있다. 또 빈곤대책 예산이 10% 증액되어 269억불이 있는의, 정년퇴직자적십사의 규축이 완화되어, 퇴직후의 미급여자의 외부수입이 증가된경우에도 급여액을 잠잠시키안는것을 규정하였다. (제4편에 계속)



(제 3편으로부터 계속)

사감을당한 각성 예산중에서 "특별대우"를 받은 사범성은 손손예산의 천6백만원으로부터 7억3천만
불로 일거에 증액되어 방적방지에 중점을 두는 니손의 자세가 반영되고있다. 그러나 역시
사회학대책의 중심기권인 우생교육, 주택도시개발의 두성운, 전자가 7천4백만원, 후자가 사회
보장관계도 포함하여 1억7천9백만원이나 사감을 받았다. 또 원자력·우주관계예산은 1억4천만
불, 우정·운수예산은 4억2천만원 사감되어있다. "엄한 선례와, 불인기를 초대할만한 결정도
미치지 않았다" 라고하는것이 니손대통령의 수정예산에대한 설명이다.

중동은 폭발적정세 후세인국왕담

(뉴욕 4월14일밤, 중동) 밤미중인 후세인·윤단국왕은 13일 레베비존에아와 중동문제를 지시
해결하지 않으면, 국이 위험한 정세에 떠러진다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현재진행중의 4대국 회의는, 정당하고 오래 계속되는 평화수립을 위한 최후의 기회일뿐이도
모른다. 조금이 무엇인가를 실현하지 않으면, 정세는 비상이 위험하다.

1. 현상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중동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날 중대한 위험이있다.

스이즈 에디 포격 공중전

(예루살렘 14일밤, 에이피) 14일 이스라엘, 예지드스양군은 스이즈운하를7기포, 포격, 공중전을
하였다. 이스라엘은 애람연합군의 미구2기 1기를 격추하였다라고 발표, 애람측은 이스라엘군
젯트기 1기를 예지드스영내에 불시착시켰다고 발표하고있다. 또 아바·에반·이스라엘 의상은
윤단의 후세인 국왕의 외평6항무제안에대해서 "애람제국이 실제로 이스라엘과의 외평고섭의 자리
에 안지 않는한, 이러한 제위는 고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비난하였다.

인사소속

하와이섬 입도에서 다년간 여권사업을 경영해오는 박자도관생의 류인 박찬순여사는 작년부터
복부가 간혹 거북하고 소회불량증으로서 직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체중이 감소되고 고통을 받고
계시든중, 지난달 오랑에잇는 자녀들을 방문차 태평양에 체류중, 특히 거북한 증세가 발생하여
진찰한결과 복장에 들땀이 들어잇서서 불편하다고하여 곧 수술을 하고 세인트루이스병원에서
정양중이시라는데, 만은 차도를 보아, 머지않아 박여사께서 의원퇴가하실것이라고한다.

본래평양주보사 주필이신 김창원씨의 저제인 유주신양은 한국서울에서 초급대라을 졸업하고,
언터의 주선으로 하와이에 영주목적으로 지난 1월말에 태포하여 영남인 김경옥씨때에서 체류중
이러는데, 금월초부터 하루에 몇시간씩 영어학교에서 영어실습중이라고한다.

연세대 합창단 공연성공

한국연세대학합창단이 미국뉴욕에서 개최된 자유14개국의 합창대회에 참석하여 대인기를 달고
귀국도중, 하와이에 하루를 머물러 하와이대학 오·비스강당에서 지난 4월7일에 대합창공연을
하였는데, 이날저녁7시반에 강당은 만원이었으며, 아름다운 한국국민창 세계우수국민창으로 대
인기를 달고, 큰 성파를 거두고 익일에 만나절을 성구경으로지내고 8일오후 3시반미행기로 귀국
하였다. 일본에서 약7일간체류하여 4번이나 공연후에 한국에 간다고한다.

주말 재청보단

년매금	외이아와	김동순	10.00	문덕만	10.00	조용주	10.00	오랑	조정옥	10.00
	릴리아	지영희	10.00	리새별	10.00					
주보대금	외이아와	김동순	10.00	리명성	10.00	릴리아	지영희	10.00		
	오랑	복원민	10.00							
적립금	외이아와	김동순	2.00	문덕만	2.00	조용주	2.00	오랑	조정옥	2.00
	릴리아	지영희	2.00	리새별	2.00					

